

한방소아과 설문지 및 검사에 관한 임상현황연구

황영준 · 김기봉 · 민상연 · 김장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Abstract

Clinical Investigation of Survey and Test in Korean Oriental Pediatrics

Hwang Young Jun, Kim Ki Bong, Min Sang Yeon, Kim Jang Hyun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oriental pediatrics hospitals are using their feedback surveys to improve their medical conditions.

Methods

We selected 24 oriental medicine university hospitals and sent surveys to investigate. 15 of those surveys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were classified as follows; Only 9 of university hospital said that they are currently using their feedback surveys to improve their services. Question for asking the purpose of doing their feedback surveys, 58.3% of hospital responded to get some information for diagnosis, 25% of them said to see the progress of treatment of specific disease, and 16.7% answered for using their data to the further studies. The question about the reason why hospital were need to make these feedback surveys, 46.2% of them answered to apply better service, 38.4% of them said to post medical journal. The question for asking what do oriental medical hospitals check from feedback surveys, 40% of them said they check Ryodoraku, 33.3% was pulse diagnostic apparatus, EAV(Electro-puncture According to Voll) was 26.7%.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urpose of test resulted as follows; information for diagnosis was 48.1%, the progress of a disease was 37.3%. In addition oriental medical test there were blood test, radiological test, brain waves test, Hair Tissue Mineral Analysis(HTMA), ultrasonic test, body composition analysis.

Conclusions

Further clinical research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using the feedback survey effectively.

Key words : Survey, Test, Oriental Pediatrics

I. 緒 論

환자를 진찰하는 중요한 목적은 환자의 병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있다. 의사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단서이든 숨겨져 있는 단서이든 모든 단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병력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¹⁾.

소아과는 “嘔科”라고 하여 영아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비교적 큰 아이들도 질병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며 진찰시에 울어서 정상 검사에 영향을 주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발육 과정에 있어서 조그만 월령과 연령의 차이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지므로 보호자의 말에 많은 비중을 두고 문진에 대신할 수 밖에 없다²⁾.

최근에는 問診에 대한 정량화 연구로 설문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설문지를 통한 한의학 적 문진 결과와 생체신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³⁾. 설문 작업을 거쳐서 축적된 자료는 의료 정보학 분야의 핵심적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근거중심의학의 학문적 바탕이 되고, 임상 통계의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⁴⁾.

또한 기기를 이용한 검사의 활용은 진단의 객관적인 평가와 예후판단, 치료방향의 설정등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임상적 재현성 제고와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⁵⁾.

그 동안 발표된 한방소아과학의 논문에서도 각종 설문지나 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는 아

직까지 없었다. 이에 저자는 한방소아과 진료를 표방한 한의과대학의 부속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 및 검사의 임상현황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對象 및 研究方法

1. 연구대상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시행하였으며, 11개 한의과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학의 부속한방병원을 조사하여 한방소아과 진료를 표방한 24곳의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을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한방소아과 진료에 대한 설문지, 검사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총 24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중 회신된 15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III. 結 果

1. 한방소아과의 단독진료 및 타과 진료 현황

한방소아과의 진료를 단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10명이 그렇다고 하

Table 1. Independent Practice of Oriental Pediatrics

	응답자수(명)	퍼센트
한방소아과 단독진료	10	66.7%
타과진료포함	5	33.3%
합 계	15	100%

Table 2.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Questionnaires in Oriental Pediatrics

설문지 사용여부	응답자수(명)	퍼센트
사 용	9	60%
사용안함	6	40%
합 계	15	100%

Table 3. The Purpose of Questionnaires in Oriental Pediatrics

설문지의 목적	응답횟수(회)	퍼센트
진단시 참고자료	7	58.3%
치료 경과 확인	3	25.0%
논문 데이터	2	16.7%
합 계	12	100%

Table 4. The Type of Questionnaires

설문지의 종류	응답횟수(회)	퍼센트
ADHD	3	18.7%
성장클리닉	3	18.7%
초진설문지	3	18.7%
비염	2	12.5%
아토피피부염	1	6.2%
식욕부진	1	6.2%
한방변증	1	6.2%
인터넷 중독	1	6.2%
틱장애	1	6.2%
합 계	16	100%

였으며 5명이 타과를 함께 진료하고 있었다. 한방 소아과와 타과를 같이 진료하고 있다고 응답한 5명 모두 여성외과과와 함께 진료하고 있었다(Table 1).

2. 한방소아과 설문지의 유무

한방소아과의 진료에 있어서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9명이 그렇다고 하였으며, 6명은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설문지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6명 중 1명은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문진하여 기록한다고 답하였다(Table 2).

3. 한방소아과 설문지의 목적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목적을 중복 허용하여 묻는 질문에 진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7회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경과의 확인이 3회였고, 논문의 데이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2회였다(Table 3).

4. 설문지의 종류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9명 중에서 설문지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를 중복 허용하여 묻는 질문에 ADHD, 성장클리닉, 초진설문지가 각 3회로 가장 많았으며, 비염관련 설문지 2회였고, 아토피 피부염, 식욕부진, 한방변증, 인터넷 중독, 틱장애에 관련한 설문지가 각 1회였다(Table 4).

5. 설문지의 작성 배경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9명 중에서 설문지 작성의 배경을 중복 허용하여 묻는 질문에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6회로 가장 많았으며, 학회지를 포함한 논문에서 활용

Table 5. The Base of Questionnaires

설문지 제작의 근거	응답횟수(회)	퍼센트
직접 제작	6	46.2%
논문에서 활용	5	38.4%
단행본	1	7.7%
타병원 자료	1	7.7%
합 계	13	100%

Table 6. The Frequency of Questionnaires

	초진시(회)	초진시+치료종결시(회)	치료중
ADHD	1	2	미시행
성장클리닉	3	0	미시행
비염		2	4주당 1회 - 1회, 6주당 1회 - 1회
아토피 피부염		1	미시행
식욕부진		1	미시행
한방변증	1		미시행
인터넷 중독		1	미시행
틱장애		1	미시행

Table 7-1.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Oriental Medical Test in Oriental Pediatrics

한방검사(의료보험적용)	응답자수(명)	퍼센트
시행	9	60%
모두 시행 안함	6	40%
합 계	15	100%

하는 경우가 5회였으며, 단행본과 타병원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각 1회로 조사되었다(Table 5).

6. 설문지 횟수

초진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 설문지 횟수를 묻는 질문에 ADHD의 경우 2명은 초진과 치료종결시에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1명은 초진시에만 시행한다고 하였다. 성장클리닉의 경우 설문지를 활용하는 3명 모두 초진시에만 활용한다고 답하였으며, 비염의 경우 2명 모두 초진과 치료종결시에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1명은 4주당 1회씩 한다고 하였으며, 1명은 6주에 1회 시행한다고 답하였다. 한방변증 설문지의 경우 초진시에만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아토피 피부염, 식욕부진, 인터넷 중독, 틱장애 설문지의 경우 초진시와 치료종결시에 설문한다고 조사

되었다(Table 6).

7. 한방소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검사의 여부 및 종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방검사의 시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9명은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6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Table 7-1). 한방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9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검사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양도락 검사를 하는 경우가 6회로 가장 많았으며, 맥전도 검사가 5회, 경락기능 검사가 4회로 조사되었다(Table 7-2).

8. 검사의 목적

검사의 목적을 중복 허용하여 묻는 질문에 진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Table 7-2. The Frequency of Oriental Medical Test

한방검사	응답횟수(회)	퍼센트
양도락 검사	6	40%
맥전도 검사	5	33.3%
경락기능 검사	4	26.7%
합 계	15	100%

Table 8. The Purpose of Oriental Medical Test

검사결과외의 활용	응답횟수(회)	퍼센트
진단시 참고자료	13	48.1%
치료경과의 확인	10	37.0%
논문 작성시 데이터	3	11.1%
치료법의 개발	1	3.8%
합 계	27	100%

Table 9-1.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est Classified by Disease

	아토피 피부염(명)	비염(명)	ADHD(명)	성장클리닉(명)	비만클리닉(명)
검사시행	6	11	7	15	14
검사없음	9	4	8	0	1
합 계	15	15	15	15	15

Table 9-2. The Type of Test

	아토피 피부염	비염	ADHD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혈액검사	4(66.6%)	5(20.8%)		4(12.9%)	4(20.0%)
모발미네랄	1(33.4%)		2(28.6%)	2(6.5%)	1(5.0%)
생혈액검사	1(33.4%)				
방사선검사		11(45.8%)		11(35.7%)	
비강내시경		8(34.4%)			
뇌파검사			3(42.8%)		
설문지			2(28.6%)		
초음파검사				7(22.3%)	
체성분 분석				4(12.9%)	14(70.0%)
3D체형측정				2(6.5%)	1(5.0%)
체열진단검사				1(3.2%)	
합 계	6	24	7	31	20

경우가 13회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경과의 확인을 위함이 10회, 논문 작성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함이 3회였으며, 치료법의 개발을 위함이라고 답한 경우가 1회였다(Table 8).

9. 질환별 시행하고 있는 검사의 현황

한방검사 이외에 시행하고 있는 검사를 묻는 질문에 아토피 피부염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6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9명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Table 9-1). 검사를 시행

하고 있는 6명을 대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 중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혈액검사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횟수가 4회로 가장 많았으며, 모발 미네랄 검사와 생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각 1회로 조사되었다(Table 9-2).

비염의 검사를 묻는 질문에는 11명이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4명은 검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Table 9-1). 시행하고 있는 검사를 중복 허용하여 묻는 질문에는 방사선 검사가 11회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비강 내시경 검사가 8회, 혈액검사 5회로 응답하였다.

ADHD의 검사는 7명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8명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Table 9-1).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뇌파 검사가 3회, 모발 미네랄 검사 2회, 설문지를 이용한 검사가 2회순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담당한다고 답한 경우가 1명이 있었다(Table 9-2).

성장클리닉에서는 응답자 15명 모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Table 9-1), 방사선 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11회로 가장 많았으며, 초음파 검사 7회, 혈액검사 4회, 체성분 분석 4회, 모발 미네랄 검사 2회, 3D체형 측정검사 2회, 체열 진단 검사 1회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9-2).

비만클리닉에서는 1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Table 9-1), 시행하고 있는 검사로는 체성분 분석이 14회로 가장 많았으며, 혈액검사가 4회였고, 모발 미네랄 검사와 3D체형 측정검사가 각 1회로 조사되었다(Table 9-2).

IV. 考 察

소아의 진단에 대하여 古人들은 “寧醫十丈夫 莫醫一婦人 寧醫十婦人 莫醫一小兒 盖小兒難問證 難察脈 治之尤難故也”^{6,7)}이라 하여 여러 가지 診斷 중 특히 問診과 切診이 어렵다고 하였다. 더욱이 소아는 春의 少陽之氣와 같아서 臟腑가 脆嫩하고 皮膚가 軟弱하며, 經絡이 絲線과 같고 呼吸이 毫毛와 같으며 寒熱虛實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고 성인에 비하여 생리적 조건과 병리적 현상이 특이하기 때문에 소아의 진단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8,9)}.

한의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단법인 望聞問切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객관성에 대한 입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의학계에서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증상의 정량화와 변증의 객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四診 중에서 望診이나 切診에 대한 정량화 연구의 일환으로 영상화된 의료기기를 이용하거나 의료정보처리 시스템, 생체신호의 검출 및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의료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⁰⁾.

그 동안 발표된 한방소아과학 논문들에서도 기기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백 등¹¹⁾은 3D 모아레 측정을 통하여 배부체형과 신체자각증상을 연구하였으며, 신 등¹²⁾은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비만을 진단하였으며, 이 등¹³⁾은 뇌파측정을 통하여 비염환아와 정상아의 주의집중력을 비교하였다. 소아의 성장과 관련한 논문에서도 이 등¹⁴⁾은 저신장저체중 소아청소년의 모발미네랄 검사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 등¹⁵⁾은 완관절 초음파의 통과속도와 양도락 측정치를 비교하여 양도락 검사가 소아의 성장에서 갖는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서 등¹⁶⁾은 종골부위의 초음파 영상을 통한 성장판의 길이와 골밀도를 이용하여 종골의 성숙도와 성장계측치와의 상호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기를 이용한 검사 이외에도 유 등¹⁷⁾은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內消和中湯加味方이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말초혈액의 IFN- γ , IL-4, IL-5의 변화를 관찰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설문지나 검사기기를 이용한 진단법이 그 동안 다수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정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이나 방법이 중복되기도 하였다. 이에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 및 검사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을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11개 한의과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학의 부속한방병원을 조사하여 한방소아과 진료를 표방한 24곳의 한의대 부속한방병원을 선정하였다. 한방소아과 임상진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 및 검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총 24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중 회신된 15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방소아과를 단독과목으로 진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응답자 중 10명이 한방소아과를 단독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5명은 한방소아과와 함께 타과진료를 같이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타과의 진료과목은 모두 여성의학과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한의학적으로 여성의학과와 한방소아과의 연관성보다는 환자의 특성상 어머니와 환아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려되며, 각 대학병원간의 차이로 인하여 과가 개설되지 못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진료시 설문지의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15명 중 9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6명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6명중 1명은 진료시 직접 문진하여 체크한다고 답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료하는 경우가 설문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문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진단시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치료 경과의 확인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5.0%로 나타난 반면, 논문의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6.7%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의 목적이 특정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로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증상의 개선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설문지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는 ADHD, 성장클리닉, 초진과 관련한 설문지가 각 3회로 가장 많았으며, 비염이 2회, 아토피 피부염, 식욕부진, 한방변증, 인터넷 중독, 틱장애가 각 1회로 조사되었다. 이는 ADHD 환자의 경우 진단의 기준이 다소 명확하고 문진의 내용이 많기 때문이며, 성장클리닉과 초진의 경우 전신의 제증상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려된다.

설문지 작성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서는 설문지를 직접 제작한다고 한 경우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학회지를 포함한 논문에서 활용한다고 한 경우가 38.4%였다. 이외에 단행본이나 타병원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경우가 각 7.7%로 나타나 설문지 작성시 주로 각 병원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의 횟수를 묻는 질문에 ADHD의 경우 초진시만 설문하는 경우가 1회였고, 2회에서는 초진과 종결시에 한다고 답하였다. 성장클리

리닉의 경우 3회 모두 초진시에만 설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성장클리닉에서 초진 설문이 중요하며, 이후의 치료효과는 설문보다 신장이나 체중의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염의 경우 2회 모두 초진과 치료 종결시에 하며, 치료 중에도 4주 또는 6주에 1회씩 설문한다고 답하였다. 이 외에 아토피 피부염, 식욕부진, 인터넷 중독은 초진과 치료종결시에 각 1회씩 한다고 하였으며, 한방변증 설문지의 경우 초진시에만 1회한다고 답하였다. 만성 비염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한방소아과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한방검사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15명 중 9명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6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한방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9명을 대상으로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양도락 검사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맥전도 검사가 33.3%, 경락기능 검사가 26.7%순으로 나타났다. 양도락 검사와 맥전도 검사, 경락기능 검사는 臟腑기능 진단기기로써 각 장부의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으며, 종합검진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진단이 가능하다¹⁸⁾. 소아에게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問診이 어려운 소아의 특성상 서의학적인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유용한 검사방법이라고 사려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방검사의 결과와 환자의 증상 및 변증의 관련성에 관하여 자료의 축적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진단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8.1%로 가장 높았으며, 치료경과의 확인이 37.0%였고, 논문 작성시 데이터로 활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11.1%

였다. 반면, 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3.8%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의 목적이 주로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경과의 확인이 목적이며, 임상경험의 축적이나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방검사 이외에 시행하고 있는 검사를 조사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9명이 응답하였으며, 6명의 응답자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의 66.6%는 혈액검사를 한다고 하였고, 모발미네랄 검사와 생혈액 검사가 각 16.7%로 조사되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설문지나 검사를 통한 진단보다는 망진과 문진, 절진 등을 통한 진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비염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1명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명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검사의 종류로는 X-ray 및 CT를 포함한 방사선 검사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비강 내시경 검사가 34.4%였고, 혈액검사가 20.8%로 조사되었다.

ADHD의 경우 15명의 응답자 중 8명이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의 42.8%가 뇌파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설문지와 모발미네랄 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각 28.6%로 조사되었다. ADHD는 양방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내원하였거나 문진을 통해 진단하기도 하기 때문에¹⁹⁾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검사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장클리닉의 경우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모두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중에서 방사선 검사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초음파 검사가 22.3%였으며, 혈액검사와 체성분 분석이 12.9%, 모발미네랄 검사와 3D체형측정 검사가 각 6.5%였고, 체열진단

검사를 이용한다고 한 경우가 3.2%로 조사되었다. 성장클리닉에서는 다른 질환보다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방사선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소아 및 청소년의 성장속도 및 성성속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만 클리닉의 경우 1명을 제외한 14명의 응답자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검사는 체성분 분석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혈액검사가 20%, 모발미네랄 검사와 3D체형측정검사는 각 5%로 조사되었다. 체성분 분석이 다른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비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지의 응답자가 15명으로 63.3%의 응답율로 다소 낮았다는 것과 대학한방병원 이외의 한방병원이나 한방소아과를 전문으로 표방한 한의원등을 조사하지 못한 점이였다.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소아과 진료에 활용되고 있는 설문지 및 검사의 임상현황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성장이나 비만클리닉과 같은 특정클리닉을 제외하고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설문지나 검사의 방법은 없었다. 설문지나 검사의 목적 또한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경과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치료법의 개발이나 임상자료의 축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방소아진료에 대한 구체적 임상진료 지침이나 진단을 위한 진단기기의 개발, 새로운 치료의 연구와 치료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임상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V. 結 論

1. 한방소아과의 진료를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
2. 한방소아과의 진료에서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명이었으며, 설문지의 목적으로는 진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고, 치료경과의 확인이 25%였다.
3. 설문지와 관련된 질환은 ADHD, 성장클리닉, 초진설문지가 각 3회로 가장 많았으며, 비염관련 설문지 2회였고, 아토피 피부염, 식욕부진, 한방변증, 인터넷 중독, 틱장애에 관련한 설문지 각 1회였다.
4. 설문지는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학회지를 포함한 논문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38.4%였고, 이외에 단행본과 타병원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각 7.7%로 조사되었다. 설문지의 횟수에 대해서는 각 질환별로 초진과 치료종결시를 구분하여 설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한방검사는 9명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행하고 있는 한방검사는 양도락 검사가 40%였고, 맥전도 검사가 33.3%였고, 경락기능 검사가 26.7%로 조사되었다.
6. 검사의 목적은 진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48.1%였으며, 치료경과의 확인을 위함이 37.3%였고, 논문 작성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함이 11.1%였으며, 치료법의 개발을 위함이라고 답한 응답은 3.8%였다.
7. 한방검사 이외에 시행하고 있는 검사로는 혈액검사, 모발 미네랄 검사, 생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비강 내시경 검사, 뇌파 검사,

설문지를 이용한 검사, 초음파 검사, 3D체형 측정검사, 체성분 분석 등이 있었다.

參考文獻

1. Mark H. Swartz. 슈왈츠 임상 진단학.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4:3.
2. 김덕곤, 김윤희, 김장현, 박은정, 백정환, 이승연, 이진용, 장규태. 동의소아과학.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2:36.
3. 박영재, 박영배. 통계기법을 활용한 변증 정량화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1;5(2): 306-30.
4. 김숙경,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3;7(1):65.
5. 박영배. 맥진기의 현황과 전망. 1997;1(1):87.
6. 許俊.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80:634-35.
7. 黃道淵. 醫宗損益. 서울:醫學社. 1976:704-05.
8. 丁奎萬. 東醫小兒科學. 서울:杏林出版社. 1985:138-51.
9. 江育仁, 張奇文. 實用中醫兒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54-60.
10. 김보연, 박경모. 디지털 설진 획득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2;6(1):65-78.
11. 白賢, 張奎台, 金璋顯. 모아레 측정법과 설문지 조사를 통한 경기도 S고등학교 재학생의 신체자각증상과 배부체형에 대한 실태 조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3;17(3):55-74.
12. 신동길, 김덕곤, 이진용. 비만아 9회에 대한 광항정기산 가미방의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5(1):183-94.
13. 이남열, 한재경, 김윤희. 뇌파측정을 이용한 비염 환아와 정상아의 주의집중력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7;21(2):1-12.
14. 이민정, 한윤정, 장규태. 저신장저체중 소아청소년의 모발미네랄분석.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7;21(2):51-67.
15. 이동형, 이진용. 한방소아과에 성장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환아들의 양도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7;21(3): 145-56.
16. 서영민, 장규태, 김장현. 종골의 초음파영상을 통한 소아성장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3;17(3):1-13.
17. 유한정, 이진용, 김덕곤. 內消和中湯加味方이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혈중 Cytokine 분비에 미치는 영향. 2006;20(2):15-29.
18. 문구, 이병구. 만성 상부위장관증후군 환자 76례의 EAV 검사소견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99;16(2):312.
19. 정민정, 이승연. 주의력부족 과잉행동장애 환아에 대한 임상현황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6;20(3):105-16.